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47) (8/6/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24 장 죄인에 대한 심판과 형벌, 5-7 절

고전 4:10 -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시 107:42 -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고후 4:17 -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 29:19 -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니.

계 1:8 -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5. 그 날에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미련한 자가 되어 멸시받고자 하였던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고전 4:10). 그 날에는 모든 환난을 인내로써 감당하였던 사람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게” 될 것입니다(시 107:42). 그 날에는 경건한 사람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불경건한 자들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이 세상에서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고후 4:17). 그 날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옷에서는 광채가 나고 빛을 발하게 될 것이지만,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은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초라한 초가집이 온통 금으로 장식된 궁전보다 더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끝까지 변함없이 참고 인내하여 믿음을 지켜 산 것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누리며 산 것보다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단순한 순종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사 29:19).

6. 그 날에는 순전하고 깨끗하고 선한 양심이 박사들의 철학보다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재물을 경멸하는 마음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히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기도에 착념하였던 것이 호의호식했던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 날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침묵하며 살았던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거룩한 행실이 많은 아름다운 말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엄격하고 절제된 삶과, 가슴을 치며 통회자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던 것보다 더 귀한 삶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큰 괴로움들을 영원토록 겪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작은 괴로움들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나중에 내세에서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지금 여기에서 먼저 검증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잠시잠간 작은 괴로움조차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장차 큰 괴로움들을 영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잠시잠간 작은 고난조차 참아낼 수 없다면, 어떻게 장차 지옥 불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두 번의 삶에서 모두 다 기쁨을 누리는 것, 즉 현세에서 세상의 즐거움들을 누리다가, 내세에 가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7. 당신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 왔다고 해도, 바로 이 순간 죽음이 당신을 찾아온다면, 당신의 그런 삶이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헛된 일입니다(전 1:2).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이나 형벌이나 심판이나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짓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악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악을 멀리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선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금세 마귀의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말씀과 해설:

기독교 역사관은 '일직선의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가르치며 창조된 세계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가르친다. 창조주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계 1:8 -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 22:13 -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의 기원을 알며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께서 다시 돌아간다. 일직선의 역사관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한 번 뿐이며,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그저 앞으로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 갈 뿐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언제 주님께로 갈지 모른 다는 것이며, 반드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면하여 만난다는 것이다. 마지막 때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그 때는 우리의 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 때 드러난다는 것은 누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누가 알곡이며, 쭉정자인지,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지, 못 받을지, 누가 진정한 승리자이고 패배자인지, 누가 인생을 정말 잘 살았는지, 그렇지 못 했는지가 드러난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천국에서의 부귀영화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칭찬받은 것이 내가 천국에서 칭찬받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고,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의 외적인 모습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때 정말 가려진다. 마 13 장에 기록된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이다. 마 13:47-50 - 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5.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나는 정직과 진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조금의 감추어짐도 없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모든 것, 내 마음의 모든 것,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누가 참된 성도였는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지, 누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마 7:22-23 -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이다. 겉으로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 보다는 나의 마음을 보신다. 내가 외적으로 아무리 종교적인 훌륭한 모습이 있고, 교회를 잘 다니고, 봉사와 구제에 열심이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의 중심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지금도 주님은 아신다. 그리고 때때로 진실을 드러내신다. 동시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낱알이 다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순간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한다.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지, 주님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깊이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 외적인 것에 스스로 속지 말고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면과 중심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내면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외적인 삶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언젠가는 서게 될 최후의 심판의 자리를 미리 염두에 두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믿음과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정말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그 모습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3. 북한, 중국, 중동지역 등 기독교 탄압이 자행되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고난 가운데 영적 승리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 패역한 땅의 온전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